

# 법정보다 연극무대가 더 떨려요

## ‘쉬어 매드니스’ 변호사역 맡은 장품 변호사

“법적 쟁점을 주로 다루겠지만 무대이니 만큼 연극적 재미도 추구하고 싶어요. 관객 여러분께서 변호사를 좀더 편한 직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.”

연극 <쉬어 매드니스>에서 배우로 ‘깜짝 변신’하는 새내기 변호사 장품(30·사진)씨는 “대학 때 모의법정이나 모의국회에서 서본 적은 있지만 연극 무대는 난생처음이고 변론도 직접 써야 해 내심 부담이 된다”며 긴장감을 내비쳤다.

그는 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첫 직장으로 법무법인 지평지성에 입사한 1년차 변호사다. 회사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오는 15일과 29일 상명아트홀 무대에서 약 20~30분간 극중 살인 피의자를 변호하는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칠 예정이다. 그는 연극이 중반에 접어들 때까지 객석에 앉아 있다가 돌연 무대로 뛰어올라가 극중 4명의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인 이발사를 5분가량 변호하게 된다. 2006년 초연 이후 지난



해 장기 공연에 돌입한 <쉬어 매드니스>는 이발소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경쾌하게 담아낸 코믹 추리극이다.

지평지성에서는 2008년 제작사인 뮤지컬해븐 박용호 대표의 제안으로 이 연극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올해까지 12명의 현직 변호사가 무대에 오르고 있다. **연합뉴스**